

『교회재정 사용에 대한 성서 신학적 고찰』

유 태 역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I. 이스라엘 백성의 헌물의 의미

1.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인간의 의무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이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 그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창 3:3), 아벨은 양을 쳐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었고(창 4:4),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물로 드렸다(창 8:20).

2.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민족을 형성한 이후에 십일조의 관습이 생겨났고(창 14:17-20), 족장들에게서 이러한 전통은 이어졌다(예. 창 28:20-22). 레위기에 이르러서는 십일조는 마침내 법으로 제정되었다(레 27:30-32). 십일조를 드림은 1)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 2)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을 위하여 그리고 3) 수입이 적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적 의미로서 분배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3. 십일조를 비롯해 헌물은 크게 네 가지 용도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 1)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 포괄적인 의미로 매일 제물로 바칠 짐승(출 29:36-42)과 향(출 30:36), 등.
- 2)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 방편을 돋기 위함이었다(민 18:21-24).
- 3)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다(신 14: 28-29; 15:11; 16:11).
- 4)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예.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등).

4. 어떠한 명목으로든,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성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주신 복에 따라 최선을 다해 헌물을 드렸다(참조. 신 16:15-17).

II. 이스라엘 백성의 헌물 사용에 대한 자세

1.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의 남용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한 예를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었던 아간의 예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을 정탐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탐 도중에 36명이 죽게되고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되는”(수 7:5)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사적으로 취했기 때문이었다(수 7:1).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 그리고 오십 세겔의 금덩이를 훔쳐 자신의 장막에 감추어 두었다.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가족과 기축들 그리고 그가 취한 물건들을 불사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아골 골짜기(괴로움)라 칭하였으며, 그날의 사건을 계속하여 기억하였다(수 7:26). 후에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한다(수 22:20). 왕정 국가에서도 아간의 사건은 헌물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참조. 대상 2:6-7).

2. 1세기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성서 시대의 헌물에 대한 경건함은 이어졌다.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흠 없는 1년생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 하지만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전 경내에서는 순수하여야 할 제물을 두고 짐승을 파는 자들과 성전을 맑은 자들 사이의 겹은 거래가 있었다(요 2:13-25). 부패한 제사제도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집에서 키운 짐승을 가지고 오기를 포기하고 제물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전상도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성전에서의 이러한 거래는 예수의 분노를 자극하였다. 반면에 예수는 두 렙돈을 연보 케에 넣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였으며, 아마도 가난한 교회 공동체에 위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막 12:41-44).

3. 하나님께 드린 현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 요세푸스의 보도에 의하면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Gesius Florus, 64-66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현금을 훔쳤다(요세푸스, 전쟁사 2.293). 이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으로서, 몇몇 젊은 유대인들이 즉시 이처럼 매우 가난한 총독을 위해 바구니 하나를 돌림으로써 이러한 일을 조롱하였다. 분노한 총독은 시장의 광장에 그의 군대를 풀어 마음대로 군중들을 죽이고 약탈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유대 폭동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66년에 폭동이 시작되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70년)을 초래하게 되었다.

III. 1세기 신앙 공동체의 현물 사용에 대한 자세

1.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종말론적 공동체였다. 자신들은 새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전적으로 종말 신앙에 고무되어 모였던 공동체였다. 회원들은 전 재산의 공용화와 투명한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으며,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행 2:44-45). 대표적으로 바나바는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행 4:37). 이러한 공동체의 생활에서 요구되는 것은 정직성이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밭을 판돈의 일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보다는 그들의 정직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부정직함은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행 5:1-10). 이 일 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행 5:11)는 것은 이상하지가 않다. 이 사건은 초기 교회의 규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배교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신념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비판적인 취지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간에게 내려진 징벌을 생각하게 된다.

2. 또 다른 종말론적 공동체인 쿰란(Qumran) 공동체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쿰란 공동체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종교적 행위에 동의하지 않아 유대 광야로 나아갔던 경건한 유대인들에 의해 처음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B.C. 150년경).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삶에 지친 자들과 운명의 파도에 밀려 그곳을 찾아온 많은 자들에 의해 큰 군락을 이루게 되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해 그들의 엄격한 규율을 세웠다(참고. Rule of Community).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건을 통용하였다. 그들의 공동체의 규칙에 의하면, 공동체의 재산을 함부로 그릇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실의 목록(예. 거짓말, 불평함, 다른 사람을 모독함)에 해당되어 엄격한 징벌을 받았다(1QpHab 1:1-10; CD 8:20-21; 19:34; 20:11-13). 쿰란의 공동분배와 초기 기독교와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3. 결론적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나 쿰란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투명한 사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생활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책임이 뒤따랐다. 이들에게서 아간의 이야기가 중요한 예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초기 교회의 현금 사용에 대한 예들

1.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독교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였고,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록 대부분이 가정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회의 기능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헌물에 대한 태도는 이방 교회에서도 이어졌다. 바울이 마게도나 교회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초기 교회들은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께 헌금하였음을 알게 된다(고후 8:1-5).

2. 초기 교회는 특별한 요구에 따라 교회 재정을 사용하였다.

1) 예루살렘 교회: 과부들에게 구제금을 나누어 주었다(행 6:1). 재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히브리파에 비교하여 헬라파 과부들에게 적은 구제금이 돌아가자 공동체 안에 분쟁이 야기되었다. 열 두 사도는 이러한 불공정성을 곧 수습하였다.

2) 앤디옥 교회: 유대에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교회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돈을 모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의해 장로들에게 헌금을 보냈다(행 11:27-30). 또한 앤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선교사를 지원하였다(참조. 행 13:1-3).

3) 마게도니아 교회: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보여준 헌신적인 연보를 칭찬하고 있다. 즉 헌물의 태도에 대한 모범적인 예로 소개하고 있다(고후 8:1-5).

4)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에 동참하였다(참조. 롬 15:25-32; 고전 16:1-4). 바울은 연보를 전할 책임으로 디도와 다른 한사람이 수고할 것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신뢰할만한 자”라고 말한다. 또한 바울은 연보에 대한 자세에 대해 암시한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훼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후 8:20-21). 연보로 인해 비난을 받지 않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려는 조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불명예스러운 평판은 복음 사업을 방해한다(고전 10:32). 행 20:4-6에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여정에 함께한 자들의 명단이 거론되고 있다. 어떠한 목적으로 이들이 바울을 수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언급하지 않으나 교회 재정의 선명성을 위해 바울은 각 교회로 하여금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베로아의 소바더,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의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의 두기고와 드로비모).

5) 빌립보 교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지원하였다(빌 4:16-18). 바울은 자신에게 보내 준 헌금을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한다(빌 4:18). 빌립보 교회는 2-3차례 물질적으로 바울을 지원하였다.

3. 이상을 근거로 초기 교회의 재정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부합하여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다. 구약 시대에 필요로 하였던 예배와 구제의 목적 이외에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마태복음과 같은 책들이 공동체의 교육을 목적으로 저술되었다고 추론할 때) 재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 선명성을 지니고 조심스럽게 재정이 사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구약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올바른 교회 재정을 위한 성서적 유추

1. 신약시대의 교회는 아직 가정 교회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현대교회의 재정 사용을 위한 직접적인 상관성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재정의 올바른 운용을 위해 가장 잘 제시해 주는 유추

를 청지기(오이코노모스)의 기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어는 뉘 12:42에서의 예수의 비유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곳에서 청지기란 용어는 종(둘러스)과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지기는 종들 가운데 책임을 맡은 자로 보인다. 여기에서 청지기는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뉘 16:1, 8에 의하면 청지기는 집안의 재산을 총괄하는 자로 소개된다. (이곳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자이지만 지혜로운 자였다고 소개되므로 유추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 바울은 청지기란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한다. 갈 4:2에서 율법의 한계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다. 고전 4:1이하에서는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 바울은 이곳에서 사도는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일군”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한다.

3. 복음서의 예수의 비유에 영향을 받아 오이코노모스는 원시 기독교에 공동의 유산이 되었다. 딜 1:7에 의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따라서 바울의 권면처럼 감독에게도 신실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벤전 4:10에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각각의 은혜를 받아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라고 말한다. 신실함과 충성이 외에 청지기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요구된다: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벤전 4:11).

4. 청지기의 직분은 이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자세를 위한 적합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뉘 16:1-13를 제외하고는 청지기가 특별히 올바른 재정 사용만을 위한 유추로 사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청지기의 직분을 고려하여 적법한 재정 사용의 성서적 유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1) 청지기로서 주님의 전폭적인 위임을 받은 자이기에 지혜롭게 재정을 다루어야 한다.
- 2) 청지기에게는 충성과 신실함이 요구된다.
- 3) 청지기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여야 한다.
- 4) 청지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VI. 마침과 제안

이상에서 찾아본 성서의 내용은 오늘날 교회에서 집행되어지는 재정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지적해준다. 우선 현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드려진 현금은 단순히 돈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물이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신실함과 선명성이 요구되며, 교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여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드리는 현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고후 9:13) 결과가 될 것이다.